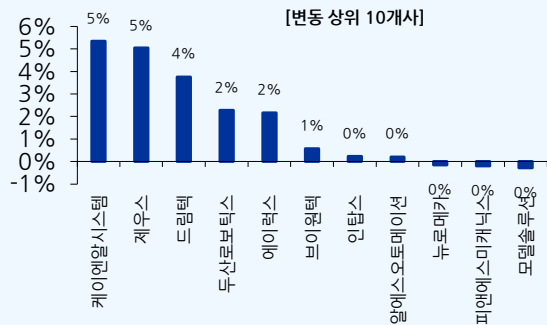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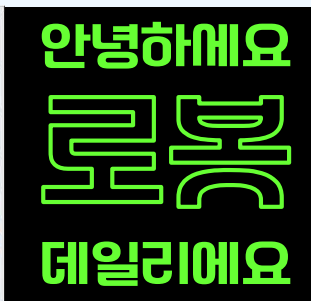




로봇 주요 뉴스(08/26)

[국내]

- 무노스 현대차 사장 "중국 누구와도 경쟁"
- 현대차 "2028년 HMGMA 배치"만 재확인
- 현대차 RMAC '로봇 훈련소' 부지 10배 넓힌다
- 레인보우, 북미 공작기계 전시회 'IMTS 2026' 참여

[해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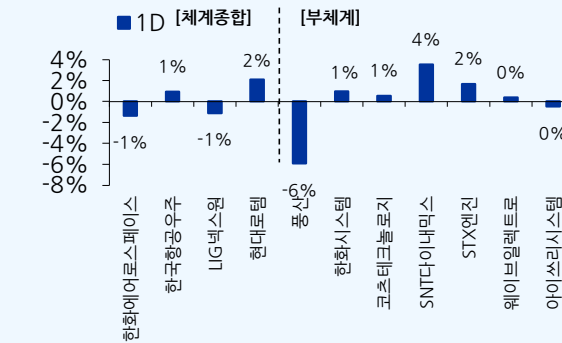
- 中 휴머노이드 로봇, 테니스 경기서 100회 이상 랠리
- 中, 피지컬 AI 훈련장 70여개 운영. 46곳 추가 건설
- 엔비디아, 추론성능 2배 젯슨 오린 신제품 공개

Zoom-In

[현대차 CID 결과]

- 현대차가 CID에서 'Physical AI 기업으로의 전환'을 다시 강조. **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재확인**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이나, RMAC 부지 10배 확대 및 수백만 시간 데이터 축적 추진, 딜러망을 통한 로봇 판매 가능성과 현대캐피탈의 로봇 구매 금융 제공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점은 새로운 포인트.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를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선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조선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시의 제각종 보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시의 동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외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당량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방산 주요 뉴스(08/26)

[국내]

- 해군 자폭드론, 함정 이륙 직후 바다 추락
- 내년 초음속 미사일 전력 배치
- LIG, 해양 무인체계 앞세워 북유럽 방산시장 공략
- 니어스랩, 싱가포르 이어 베트남 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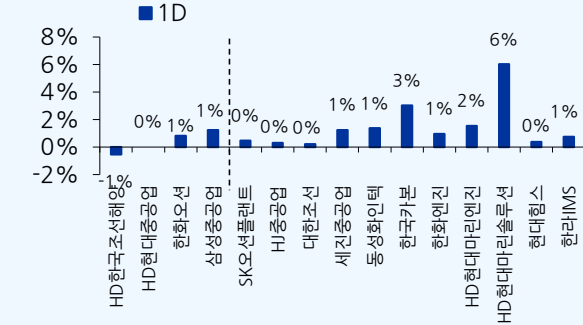
[해외]

- 佛, 우크라 '非유럽산 무기 구매' 제한 추진
- 이탈리아, EU SAFE 금액 축소하여 요청
- 미 육군 연 8,000기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도입 추진
- 日, 2030년까지 드론 8만대 생산체계 구축

Zoom-In

[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전력화 추진]

- 국산 마하 2.5·300km급 덕티드램제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2026년 말 FA-50 최종시험 → 2027년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. 한화의 덕티드램제트 기술이 실제 항공무장으로 전환되고, 기존 지대지-지대공 중심의 미사일 사업에서 항공발사 정밀 유도무기까지 제품군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.



조선 주요 뉴스(08/26)

[국내]

- HD현대, 필리핀 수빅 대규모 채용 이어 생산 확대
- HD현대중공업 FDC TF. 삼성중과 시장 선점 경쟁
- 엘라배마 지역 관계자 "한화, 인수 실사 확실히 진행"

[해외]

- 오스탈, 美 해군 최초 중형 보조 부유식 도크 진수
- 中 함대에 무인정 떼 출격. 대만 신무기 공개

Zoom-In

[대만의 무인 수상정]

- 대만이 중국 함대에 대응해 연 200척 생산 가능한 55노트급 USV와 최대 1,300척 규모 '무인정 물량전'을 준비 중. 대만 STR8 Industries가 신형 고속 무인수상정(USV) 'Ghostwake'를 공개. 저가 USV를 대량 생산-군집 운용하는 비대칭 전략. 해양 무인체계 수요 글로벌 확산 추세 계속되는 중.